

궁핍한 시대에도 일본문학은 있었다

이문재의 <‘일본’ 문학도 없고 일본 ‘문학’ 도 없다>를 읽고

고정일

동서문화사 발행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모두 고품 리에서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출발 고백을 되새겨 본다. 1956년 이쿠타가와상을 받아 일본 열도를 열광케 하고 태양족을 탄생시킨 이시하라 신타로 <태양의 계절>(강성위 옮김, 과학사)이 전격 번역·출판된 것은 4·19혁명이 일어난 1960년, 그해 10월이었다.

<태양의 계절>은 젊음의 반역적 심정과 유희적 성의식 묘사로 우리 독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그때까지 일본문학 출판급기를 깨뜨려버린 한국 출판계의 큰 사건이기도 했다.

순수·대중문학을 풍요롭게 번역한 나라

이를 계기로 진명문화사는 다니자키 준이치로 <세설라>(이준범 옮김)를, 신태양사는 이시카와 다쿠보쿠 <혼자 가리라>(김용제 옮김), 미시마 유키오 <파도소리>(김윤성 옮김),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유주현 옮김)을 발행했다. 한국출판사는 이시카와 다쓰즈 <인간의 벽>(이인석 옮김),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박재희 옮김)을, 전문출판사는 마쓰모토 세이초 <점과 선>(허문영 옮김)을 냈고, 청운사에서 <일본문학전집>, 희망출판사가 <일본단편문학전집>, 신구문화사가 <전후세계문예작품집 일본편>을 각각 출판하였다. 이 세 전집에는 현대 일본문학의 발원인 모리 오가이에서 오에 겐자부로까지 일본문학 대표작들이 망라되었다.

70년대 들어 정음사에서 시마자키 도손 <파계(破戒)>(박영준 옮김), 시가 나오야 <암야행로(暗夜行路)>(김동리 옮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라쇼몽>(허문영 옮김)과 이노우에 야스시 <둔황(敦煌)>(최효연 옮김)을 출간했다. 을유문화사는 일본문학 최고봉인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유정 옮김) 등 고전에서부터 나쓰메 소세키 <봄뽕>(김성한 옮김), 와차키 고요 <마음의 어둠>(곽학신 옮김), 모리 오가이 <기러기> 등 근대에 이르는 주요 작품을 속속 펴냈다.

<태양의 계절>을 발행한 장삼식은 일체의 터부를 파괴하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찬 이시하라 문체에 빠져 내가 꼭 출판하고 싶다'고 별렀다고 한다. 신태양사 발행인 황준성은 종합지 <신태양>과 <여성> 등

일본적 미의 세계,
일본적 사상을 탁월하게 그려낸
다니자키 준이치로, 시가 나오야,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오에 겐자부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수 문학작품이 한국에서
폭넓게 읽히지 않았던 것은
출판사 탓도 일본문학계의
탓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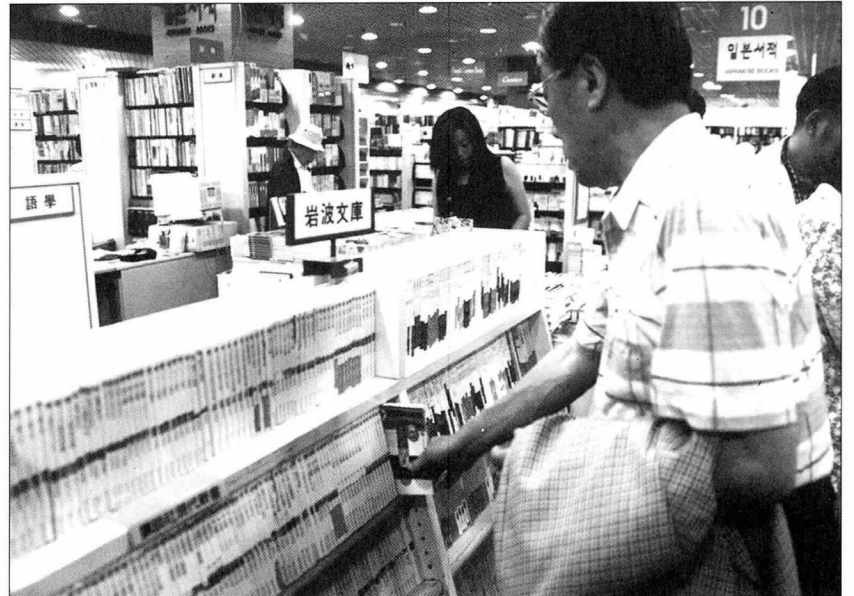
잡지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스스로 일본문학의 애독자가 되어 주옥 같은 걸작을 골라낼 수 있었다. 또 한국출판사 발행인 김천운은 대구고보 시절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를 암송하며 산과 들을 헤맨 문학청년으로 만년에는 료칸의 시에 매료되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곤 했다.

종합지 <신사조>와 <아담과 실화>를 발행한 청운사의 이종렬은 교직 출신이었다. 조영암이 쓴 '하와이 근성 시비사건'으로 어처구니 없는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학생시절 역사물인 오사기지로 <구라마텐구>, 요시카와 에이지 <미야모토 무사시>에 매혹되어 출판계에 입문하게 된다. 진명문화사 안중국 또한 일본 고단사 창업주 노마 세이지의 출판업자 일화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한다.

80년대 들어와 현암사는 미키 다쿠 <검은 방울새>, 노로 구니노부 <풀의 검(劍)>, 이다히로오 <토기>, 히노 게이조 <저 석양>, 임경자 <제단>, 나가카미 겐지 <꽃>, 오카마쓰 가즈오 <지하도(志賀島)> 같은 일본문학 신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출판사들이 아베 고보 <모래의 여자>, 이희성 <다듬이질하는 여인>, 무라카미 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등을 출판했다.

90년대에는 창작과비평사가 다카무라 고타로 <현대일본시선>(유정 옮김)을 펴냈고, 이양지 <유희(由熙)>, 시마다 마사히코 <로코코 거리>, 마루야마 겐지 <물의 가족>, 미야모토 데루 <이별의 시작>, 유미리 <시네마 가족> 등이 번역되고 있다.

우리처럼 일본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풍요롭게 번역·출판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풍요롭게 번역 출판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문학의 통속 경향 작품만 읽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하라다 야스코 <만가>, 고미가와 준베이 <인간의 조건>, 기구타 카스오 <그대 이름은>, 이시사가 요지로 <청춘교실>, 미우라 아야코 <빙점>, 시마다 렌사부로 <뽕뽕스런 녀석>, 아마자키 도요코 <불모지대>, 무라카미 하루키 <노르웨이의 숲>, 요시모토 바나나 <치킨> 등의 통속 경향 작품들만이 젊은이에게 읽히고 있다. 쉽게 읽히는 작품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존경심

일본적 미의 세계, 일본적 사상을 탁월하게 그려낸 다니자키 준이치로, 시가 나오야, 가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에서 오에 겐자부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수문학작품이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읽히지 않았던 것은 출판사의 탓도, 일본문학계의 탓도 아니다. 시류로 끝나버린 작품 말고도 유행성 한국소설과 시집을 문학사상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작품인 양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독자를 선동하는 출판행태도 문제지만, 진지한 것이 코미디처럼 조롱받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미숙한 문화기획자들의 상술에 중심을 못잡고 이끌려 가는 젊은이들의 분별 없는 독서실태, 그리고 가벼운 흥미거리들이 판치는 현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20대 청년 빅토르 위고는 노트르담 성당을 구경하러 갔다가 어두운 구석 담벽에 '숙명(ANATKH)'이라는 그리스어로 새겨진 낱말을 발견한다. 그것이 지닌 불길하고

운명적인 뜻이 그를 깊은 명상에 빠지게 했고 이것이 <노트르담의 꼽추>, <레 미제라블>의 집필 계기가 된다. 32살 이와나미 시게오는 이와나미 서점을 창업하고 나쓰메 소세키, 미키 기요시와 일본의 장래를 고민하다가 <이와나미 문고>를 창간하는데, 이들의 문학과 출판에 대한 열정은 숭고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하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존경심마저 자아내게 한다.

우리에게 있어 지금은 사려 깊고 경박스럽지 않게 현실을 고민하는 작가·비평가·출판인이 절실하다. 특히 대표적 문화산업인 문학과 출판에 대해 말하면서 면밀한 검토나 점검도 없이 선언적 수준에서 재단해 버리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문재씨의 이번 글(본지 제236호 6쪽)은 한·일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상투적 정서에 의존하여 주장을 펼 하나의 허구에 다름 아니다. 더 위험한 행간의 뜻은, 마치 무한한 자양이 흘러넘치는 일본문학의 맥을 어리석은 자들이 놓치고 있음을 과시적으로 지적하고 싶어하는 점인지도 모른다.

여명 50년 해방 50년의 한국현대출판 100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출판의지를 불태웠지만 좌절하고 괴로워하다 고달픈 삶의 문을 닫고 사라져간 선구 출판인들, 그들에게는 해박한 식견이 있었다. 사리 분별이 있었다. 그리고 스탠리 언윈경이 말하는 '출판의 진실'이 있었다. 우리 출판은 그들에게서 온 것이다. ❖